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세종바이탈, 매듭 없는 신발끈 '폴앤락'

쉽게 풀리지 않고 신축성 뛰어나... "신고 벗기 편해"

최경수 세종바이탈 대표가 실리 끈 신발끈인 폴앤락을 개발한 계기는 '본인의 불편함' 때문이었다. 정장 구두를 즐겨 신는데 매번 끈이 문제였다. 묶어놓으면 매듭이 쉽게 풀어지고, 발을 넣기도 불편해 신을 때마다 구두 주걱이 필요했다. 잘 풀리지 않으면서도 신축성이 뛰어난 신발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디자인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것을 원했다. 2010년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4년 여 시행착오 끝에 지난해 3월 구두 및 운동화용 제품을 내놨다.



은 시간을 들였다. 최 대표는 "누구든 구멍에 쉽게 끼울 수 있고, 한 번 끼워놓으면 잘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각종 신발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고, 가격도 저렴해야 했다. 손가락만 한 제품을 만드는 데 4년여가 걸린 이유다.

신발끈에 실리 끈 소재 사용 사용법 간단... 가격도 저렴 홍보없이도 1만개 판매 미국·아시아·유럽 진출



최경수 세종바이탈 대표가 매듭이 없는 실리 끈 신발끈인 폴앤락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이런 성과다. 해외 판매량이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한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비롯해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권에도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G마켓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 오프라인 판로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연내 입점을 협의 중이다.

라고 있다. 신발 제조사의 주문을 받아 '전용 폴앤락'을 제작해 주는 것. 최근 이탈리아의 한 신발업체에 제품 9만개를 공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 대표는 "내년에는 미국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 300만개 이상 판매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구멍에 끼우면 '끝' 폴앤락은 매듭이 필요 없는 신발 끈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끈 모양이 아니다. 양쪽 끝이 화살표 모양인 1자 형태(사진)다. 실리 끈 소재로 해 잘 늘어난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양쪽 신발 구멍에 끼우면 된다. 긴 신발끈을 아래 구멍부터 넣어 매듭을 묶어 마무리하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간편하다. 세트별로 크기가 다른 제품이 20개 들어 있다. 보통 신발 한 짝에 5~6개씩 충분하지만 다양한 크기의 신발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연 300만개 이상 판매 목표' 폴앤락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월평균 1만개씩 판매되고 있다. TV 광고, 협찬 등 별다른 홍보 없

람'이라고 했다. 그가 1990년대부터 등록한 특허만 90여개에 이른다.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없애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했다. 대표적인 것이 1999년 5000만원을 받고 특허 이전한 '이지결점'이다. 기존 결점은 설치가 까다로우려 전문가가 시공했다. 문틀과 문에 구멍을 파서 미세한 오차도 없이 끼워야 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틈을 파지 않고, 일반인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일(art@hankyung.com)로 신제품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세종바이탈의 매듭이 없는 실리 끈 신발끈 (070)7166-3800 △메디칼드림의 오화확분석기 (02)6000-7700 △후쿠스타일의 요거베리 요구르트메이커&치즈메이커 (02)6217-0112 △센서리움의 부착형 자동문 전환 시스템 (031)795-5077



외관 완성 작업이 한창인 고층아파트 높이의 데크하우스. 세진중공업 제공

세진중, LPG 연료탱크 등 특화 조선업 불황에도 매출 23% 증가

현장에서 과감한 설비투자·원가 절감도

지난 5일 울산 온산공단 세진중공업 공장. 줄지어 서 있는 고층 아파트 높이의 데크하우스(선내 선원 생활공간) 위에서 직원들이 외관 완성 작업이 한창이었다. 7개 동을 파이프(온도 유지가 가능한 참고형 공장)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들어가는 대형 LPG 연료탱크가 공중 막바지 작업을 거치고 있었다. 공장부지 내 접안 부두에 서자 이 회사가 납품하는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공장 시설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윤열 대표는 "우수한 공장 설비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초기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발빠른 설비 투자와 원가 절감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한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회사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3% 늘어난 5680억원,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한 333억원을 기록했다. 울산 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824억원, 256억원으로 순항 중이다. 최근 수출과 사업 다변화가 가시화돼 올해는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될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 비고르사로부터 암모니아탱크 물량을 수주해 첫 수출 실적을 올렸다. 기존 데크하우스 기술을 활용한 리빙쿼터(해상추진시설 내 선원 거주공간)를 세진중공업은 데크하우스, LPG탱크 등 대형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다. 온산공단에 연면적 60만㎡(약 18만평) 규모의 공장을 갖추고 대형 조선사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사용되는 LPG탱크 100%, 데크하우스 약 90%를 공급

중소 70% "정부 내수활성화에 주력해야"

중기중앙회 CEO 설문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내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중점 추진할 과제(복수응답)로 70.7%가 '내수활성화'를 꼽았다. '규제·노동 분야 구조개혁 완성'이 38.3%, '경제민주화 완성'이 32.0%로 뒤를 이었다. 현 정부 임기인 2018년 초까지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다는 질문에는 절반(50.3%)이 '그렇다'(그렇다 44.3%·매우 그렇다 6.0%)고 답했다. 나머지(49.7%)는 '아니다'(아니다 42.7%·전혀 아니다 7.0%)고 응답했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그렇다 46.7%·매우 그렇다 12.0%)는 응답이 58.7%로 높았지만 '아니다'(아니다 32.7%·전혀 아니다 8.6%)는 답변도 41.3%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노동·규제 등 구조개혁과 내수활성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yunjk@hankyung.com

"고려대 융복합센터, 의료·바이오산업 선도할 것"

염재호 총장 "2천억 투자유치"

고려대가 최첨단 융복합의료센터를 세우고 바이오·메디컬 연구개발(R&D) 본산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사노피 등 다국적 제약사,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 기업과 사업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동소문동5가 고려대 정릉캠퍼스에서 열린 'KU(고려대) 매직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고려대가 한국에서 의료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KU 매직 프로젝트'는 의료, 연구,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 과제 수행,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R&D 사업을 말한다. 고려대 의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등이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고려대는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러스 및 감염병 △미래형 의료가기 △맞춤형 의료 △스마트

트 에이징 등 네 가지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염 총장은 "외부 자금 유치 등을 통해 2000억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며 "관심있는 기업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고려대는 싱가포르 바이오 연구기관 에이스타, 미국 스탠퍼드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등 글로벌 연구기관 등과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마크로젠 중근단 녹색자엽에스 진원생명과학 등 제약·바이오 기업과도 R&D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베개형 소리발생기' 에코나, 이명 환자용 개발

'귀울림'으로 알려진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국내 환자 수만 28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명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질환이다. 에코나가 판매하는 베개형 소리발생기(사진)는 이명 환자를 위한 제품이다. 지속적으로 청각을 자극해 이명에 적응시키는 '소리

치료' 방식을 활용했다. 평소에는 단말기에 이어폰을 꽂아 듣고, 잠 자리에 들 때는 베개에 연결하면 된다. 베개 안 스피커에서 치료용 음원이 나와 숙면을 돕는다. 이호기 소리이비인후과 원장과 공동 개발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2015 중장년 채용한마당. "대기업 협력사 등 우량기업 총 180개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중장년 채용박람회입니다." 2015. 09. 14 | 월 | 10:00-17:00 코엑스 A1, A2홀. 참가기업: HYUNDAI, SK, LG, LOTTE, POSCO, GS, HANJIN, KT, 현대그룹, Mando 등 대기업 우수협력사 참가.

전속물건 매각공고. 투자수익용 대1,300㎡/건11,000㎡. 구로구 역세권/대교변 우량임차인 장기임대 수익률 6.5%. 매매가 190억원. ▶대치동 명품빌딩 205억원 (대950㎡/건4,300㎡) ▶노량진 투자수익용 160억원 (대500㎡/건3,700㎡) ▶대치동 사옥겸 수익용 100억원 (대350㎡/건2,000㎡) ▶강남 사옥용 신축부지 440억원 (대1,250㎡) ▶수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38억원 (대1,100㎡)

2015년 암검진수검행태조사 실시. 국립암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암검진 수검률 및 수검행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암검진과 관련된 통계산출 및 우리나라 암검진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장명수 팀장: 02-6244-0736, 권현아 대리: 02-6244-0795.

제 4차 산업혁명을 찾아서 독일 첨단기술 스마트 팩토리 탐방단. 한국경제신문은 인더스트리 4.0(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있는 독일의 첨단기업과 연구소 방문단을 파견합니다. 탐방기간: 2015년 10월 11일(월)~17일(토), 5박 7일. 참가인원: 20명(접수순 마감) / 2015년 10월 02일(금)까지 참가비: 650만원(부가세 포함). 참가문의: 한국경제신문 02)360-4880.